

소쇄원 관리 '총체적 부실'

'담양군·양씨문중 갈등' 주차료·입장료 이중 징수...탐방객들 불만

시설 훼손 심각...휴식년제 도입 시급

조선시대 민간 정원(庭園) 중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담양군 남면 소쇄원(瀟澗園) 관리가 엉망이다. 일부 시설도 크게 훼손돼 '휴식년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소쇄원=조선 중종 때 양산보(梁山甫, 1503~1557)가 출세에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살기 위해 꾸민 전통 정원. 1983년 7월 20일 사적 제304호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 10만8천531㎡로,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10여 동의 건물이 조성돼 있다.

◇너무 비싼 관람 비용 = 소쇄원 관람객들은 소형차 2천원, 대형차 3천원 등 주차료를 먼저 낸 뒤 걸어 올라와 입구 매표소에서 1인당 1천원씩 주고 입장권을 끊어야 한다. 소형 승용차 1대에 일가족 4명이 탔다면 주차료 2천원(6시간 내)에다 입장료 4천원 등 모두 6천원이 든다. 대형차의 경우 조려 상엔 5천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비싸다"는 여론이 많아 지난해부터는 3천원만 받고 있다.

결정"이라며 반발. 소쇄원 입구에 임의로 매표소를 설치했다.

군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가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했으나, 문중 측은 지난해 1월 문화재청을 상대로 '관리단체 지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국 가사문화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차료(소형 1천원, 대형 2천원)만 받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경우 협의를 통해 통합 징수 시스템으로 일원화할 것"이라며 "주차료와 입장료의 이중 징수에 대한 관람객 불만은 당분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객 수도 해마다 줄어 지난해 2005년 35만 명에서 지난해 28만5천 698명으로 1년 새 18.4% 급감했다. 같은 기간 주차료 수입은 8천200만원에서 6천600만원으로 19.5%, 입장료는 1억원에서 9천만원으로 10.0% 줄었다.

군이 지난 1983년부터 소쇄원 개보수 비용 52억2천200만원을 전액 부담했는데도, 양씨 문중이 입장료 수입에 대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양측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이원화된 징수 체계 = 관리단체인 담양군과 소유자인 양씨 문중은 현재 주차료 징수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중의 발단은 군이 지난해 12월 '지정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관리권을 양씨 문중이 아닌 민간단체인 '남면 바르게살기협의회'(2007년 이후 남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훼손도 심각 = 현재 소쇄원 광풍각(光風閣) 앞 계곡의 석축(石築) 높이가 1m의 울타리를 쳤다. 또 소쇄원 내에는 지난해 1983년 18종의 초본류와 24종의 목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2005년 조사 결과 고사리 등 초본류가 사라지고 울타리무와 백일홍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사 유실 등에 따른 지반 침하로 소쇄원 곳곳에서 담장파도 도로 사이가 갈라지는 등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양씨 문중 측은 "소쇄원 소유주자 관리자인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



소쇄원 내 광풍각(光風閣) 앞 계곡의 석축(石築). 높이 3m·길이 30m 가량이 무너졌고, 배수로도 사라지고 있다. /담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의 초본류와 24종의 목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2005년 조사 결과 고사리 등 초본류가 사라지고 울타리무와 백일홍이 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사 유실 등에 따른 지반 침하로 소쇄원 곳곳에서 담장파도 도로 사이가 갈라지는 등 붕괴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대 천득영(건축학과) 교수는 "소쇄원 내 특정 공간 접근을 금지하는 울타리를 조심히 관람객의 출입을 금하거나 정기적인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수감 찬 피의자 압송 도중 탈주

광주 버스터미널서

광주 버스터미널서

사기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경찰의 눈을 피해 도주했다. 지난 22일 밤 11시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기소중지자 신모(50·서울시 서초구)씨가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고속버스터미널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압송된 신씨는 터미널 도착 후 서부경찰서 수사과 오모(54) 경위·박모(52) 경사 등 2명에게 "용변이 급하다"며 한쪽 수갑을 풀게 한 뒤 차량 통행이 잦은 큰 길가로 자취를 감췄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 과정에서 신씨의 옷을 붙잡고 저지하던 박 경사가 무릎 꿇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오 경위 등은 그러나 23일 오전 9시경 뒤늦게 상부에 보고를 했다.

경찰은 신씨의 연고자인 서울로 수사를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 오 경위 등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신씨는 16억3천여만원의 가로렌 혐의로 2003년 7월부터 수배를 받았으며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에 불합수 수배관서인 광주 서부경찰에 넘겨졌었다.

■ 피의자 고속버스 압송 속사정

출장비 '빠듯'...개인차 위험 부담 커

경찰이 도주 우려가 있는 기소중지자를 고속버스로 압송(押送)한 것은 열악한 수사환경 때문이다. 서부경찰서 수사과 직원 53명에게 업무용으로 지급된 차량은 9인승 승합차 1대, 월 수사비는 600여만 원으로, 7개 팀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하면 출장비에 쓸 수 있는 액수는 2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번 개담에 일주일에 평균 3건 이상 기소중지자 압송을 맡고

있는 오 경위 등은 장거리의 경우 주로 대중교통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유류비와 통행료 등이 출장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차를 타고 가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면서 "수갑을 채운 기소중지자를 고속버스로 데리고 오는 것이 부담이지만,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푸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장맛비에 불어난 섬진강 30대 급류에 휩쓸려 실종

울 첫 물놀이 사고

장맛비로 물이 불어난 섬진강에서 수영을 하던 화사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물놀이 중 실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울 들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이다. 24일 오후 2시30분경 곡성군 고달면 내줄리 섬진강 '둥동 바위 낚시터'(압록 15km 상류지점) 인근에서 수영을 하던 김모(34·전북 남원시)씨가 물에 떠내려갔다. /곡성=김계중기자 kjjkim@kwangju.co.kr

김씨는 회사 동료 10여 명과 함께 섬진강변 정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슬기를 잡기 위해 해엄을 쳐 강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변을 당한 '둥동 바위 낚시터' 인근 강은 바위가 물길을 가로막아 곳곳에 여울이 형성되고 물살이 거세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섬진강에서는 지난해 3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해마다 익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덤프 노조원 '배차권 충돌' 6명 부상

24일 오후 3시55분경 순천시 서면 앞곡리 전주-광양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광주·전남담' 연합회 노조원 25여 명과 '순천·광안담' 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충돌. 신모(48) 등 6명이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일을 하던 덤프연합을 상대로 "우리에게도 배차권을 나눠달라"고 주장하며, 공사장 입구를 막는 등 집회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50여 명의 병력을 현장에 투입해 이들을 해산시켰으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가 나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아파트 에어컨 설치 인부 발코니 난간서 추락사

지난 23일 오전 11시경 광주시 북구 R 아파트 4층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L 회사 직원 김모(48·최모(32)씨)가 10여m 아래로 추락,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최씨는 중상을 입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김씨 등은 이날 무게 40kg의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던 중 난간이 5~6m 무너지는 바람에 함께 땅에 떨어졌다. 이 아파트 난간은 지난 92년 입주 당시 시설한 것이다. 입주인 K(여·39)씨는 "작업 전 난간이 노후화돼 있으니 실외기를 발코니에 놓아달라"고 요청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양: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광주점: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사실 기도 여대생 처양에 걸려 구조

○24일 새벽 5시57분경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 원룸에 사는 광주모 대학교 4년 K(여·22)씨가 두 차례나 자살을 기도. ○K씨는 처음 10m 아래로 투신했으나 원룸 4층에 설치된 가로 50cm·세로 2m의 크기의 차양(遮陽)햇볕을 가리는 좁은 지붕) 위에 떨어지는 통에 큰 부상 없이 남산친구 정모(26)씨에 의해 구조. ○K씨는 첫 번째 자살 기도에도 실패하자 또다시 옥상에 올라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 우산지구대 소속 신명섭(47)경사와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눈 끝에 마음을 바꾸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 ○남산친구 정씨는 "할계 술을 마시던 중 취입 문제 등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는데,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가더니 뛰어내렸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주) 조이트래블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 전화 (062) 234-3222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일본
추천상품1 (광주출발) 4일
오간만족! 국내 최저가 일본 큐슈 순천 289,000
추천상품2 (광주출발) 4일
통나루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299,000
추천상품3 (광주출발) 4일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399,000

온천과 전통찜닭을 즐기세요!!

중남아-광주출발 전세계 상품

세계 7대 불가사의 **광주출발** 고대의 신비와 감동 **앙코르와트!**

상품	[특급] 앙코르와트	[고급] 앙코르와트
코드	SRP-1	SRP-2
여행기간	4일	5일
7/21(5일), 8/18(5일)	899,000	1,009,000
7/25(4일), 8/4(5일), 8/8(4일), 8/15(4일)	949,000	1,059,000
7/28(5일), 8/1(4일), 8/11(5일)	989,000	1,09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권, 숙박비, 차량비, 여행가이드, 공항세, 전정보험료, 유류할증료, 여행자보험, 기사/가이드 팀
* 불포함사항: 캄보디아 도착비(자세히), \$25 미화권, 생수비, 기타 개인 경비
* 골프 18홀당 12만원/인 (그린피, 캐디비, 전동차 포함)
* 비즈니스 왕복(8석): 16만원 추가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국-광주출발 전세계 상품 2

광주에서 출발하는 **장사(장가계) 전세계 직항**
2007년 6월 16일 ~ 11월 28일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사람이 태어났는데 장가계까지 안가면, 100세라 되어도 어찌 장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코드	상품명	여행기간	적용기간	출발일	상품가
KCZP-1	[장사/장가계] - 보통호 유람선, 천자산 케이블카	3박4일	6/16~7/13	수	549,000
KCZP-2	[장사/장가계/황석제] - 황석제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599,000
KCZP-3	[장사/장가계/천문산] - 천문산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639,000
KCZP-4	[장사 GOLF] (54H) - 청죽호C.C, 자산C.C, 옹호C.C	3박4일	6/16~7/13	수	699,000
KCZP-5	[장사 GOLF] (72H) - 청죽호C.C, 자산C.C, 옹호C.C, 청죽호C.C	4박5일	6/16~7/13	토	799,000

* 공통포함사항: 공항세, 공항세, 호텔비용, 항공보험료, 유류비, 18일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관광): 단체비(10,000), 기사 가이드 경비 (여행 10,000원)
* 불포함사항 (항공): 단체비(10,000), 기사 가이드 경비 (여행 10,000원), 클럽하우스, 음식, 캐디비, 클럽 클럽비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7월 14일~15일, 9월 22일, 9월 26일, 10월 7일)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중국1-전세기상품

패키지1 (광주출발) 고구려 문화 유적지 탐방	CZ	4일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패키지2 (광주출발) 백두산/심양	CZ	4일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패키지3 (광주출발) 북경/백두산/심양	CZ	5일	▶(7/13) 매주 월요일 출발

* 공통 불포함사항
- 비자(입금비8,000), 가이드 및 기사 팀 (여행 10,000) 별도
* 성수기(7월 14일~15일, 9월 22일, 9월 26일, 10월 7일)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중국2-대만항공상품

패키지1 (광주출발) 상해/소주/항주	KE	4일	▶6월 20일 / 7월 4, 11일
패키지2 (광주출발) 상해/소주/항주/무석	KE	5일	▶7월 7, 14일
패키지3 (광주출발) 상해/장가계/원가계	KE	4일	▶6월 20, 27일 / 7월 4, 11일
패키지4 (광주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6월 23일 / 7월 7일
패키지5 (광주출발) 상해/항주/황산	KE	4일	▶6월 20, 27일 / 7월 4, 11일
패키지6 (광주출발) 상해/황산/항주/주자각	KE	5일	▶6월 23일 / 7월 7일

* 공통 불포함사항(여행지, 2는 별도 규정)
- 비자(입금비8,000), 가이드 및 기사 팀 (여행 10,000) 별도
* 성수기(7월 14일~15일, 9월 22일, 9월 26일, 10월 7일)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어떠든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경쟁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 8월경 연영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 가입업체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여행사1억원, 국내여행사500만원). 관광진흥법기법, 관광 및 무역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상기요금은 항공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통: 항공 및 선박, 전동차 / 전지역 ◆ 경비: 없음 (단, 개인적인 임,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출발인원 15명 이상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